

“원불교와 청소년 심성교육”에 대한 논평

박 상 권
(원광대학교)

본 연구는 원불교의 수행방법인 마음공부에 대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심성교육의 원불교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자기의 생활을 대조하여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훈련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권장해 왔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일기라는 독특한 일기법으로 행위의 원천인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하는 마음공부 일기법은 훌륭한 심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마음공부란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인 일원상 진리가 인간의 본성과 같다는 것을 알아 이를 회복하고 잘 보존하며 주체적으로 마음을 사용하자는 공부이다. 인간의 본성은 차별적인 마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본래적인 마음을 뜻하며, 이를 마음의 바탕이라는 뜻으로 심지(心地)라고 한다.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가지의 변화무쌍한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관찰하여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다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심성을 길들여가는 방법이 된다.

마음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자기 점점을 위해 일기를 쓴다거나, 그룹에서 발표하게 하여 그룹 멤버들이 상호 점점과 격려 및 다짐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칫 방심하거나 점점의 정성이 퇴조할 수 있으므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스스로가 변화되어감을 확인하도록 하여 필요성의 인지도 강화 및

계속성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논문이 지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마음공부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원불교의 심성교육이 지향하는 목적 또는 목표를 확인할 수 없다.
2. 마음공부의 사례를 열거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문제 제기와 새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마음공부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인 심성의 변화 유형과 지도교사가 추구하는 목표와의 합치성 여부, 그리고 제2 제3의 단계를 설정하여 성장 지속을 유도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청소년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시민이다. 그들이 전혀 원불교적인 심성교육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열거한 사례들은 긍정적인 반응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역기능이나 개선점을 발견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학부형의 반응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5. 마음공부를 보다 더 대중적으로 확산하려면 마음공부를 지도할 지도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미 실시해 온 지도자들이 겪은 고충과 문제점을 열거하고 극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